

전북, 민생소비쿠폰 21일부터 1차 지급

‘문화強道’ 전북…올 상반기 K-컬처 생태계 기반 다졌다

도민 173만명 대상 최대 45만원
21일부터 온·오프 신청 접수
소비쿠폰 전담 TF 본격 가동
콜센터 운영·상품권 확보까지

전북자치도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는 10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TF 5개 반 중심의 전담체계를 구축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전담 TF는 사업총괄, 집행관리, 현장대응, 행정지원, 언론대응반으로 구성됐으며, 각 반별로 지급 대상자 검증, 상품권 확보, 홍보 전략 등을 총괄한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정부가 지원기준을 6월 18일 주민등록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도민 173만 631명이다.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명부는 명부 검증 절차를 거쳐 16일 이후 확정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원된다. 1차 신청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지급액은 일반도민 15만원, 차상위계층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이다. 여기에 전주, 완주, 군산, 익산 거주자는 3만 원, 그 외 10개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지류·카드·모바일),

선불카드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된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전자제품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등 궁금한 사

항은 14일부터 시작되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면 19일부터 지원금액, 신청기간, 방법, 사용기한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소비쿠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 본청 실국장과 시군 공

무원, 금융기관 직원을 1:1로 매칭한 ‘신속지원 전담반’도 함께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과 민원을 즉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도민의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조치”라며 “도민 모두 소외되지 않도록 TF가 중심이 되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AI와 전북콘텐츠의 융합’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AI 기술 융합 중심 전북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전북콘텐츠산업협회 ‘JBCORECON 2025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창작·향유 문화생태계 확장
체류형 관광·생활체육 확대
하반기 문화올림픽 기반 구축

전북도는 올 상반기, 문화예술 창작 생태계 강화와 관광 콘텐츠 고도화, 생활체육 참여 확대,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 기반 정비 등 문화·관광·체육·유산 전 분야에 걸쳐 ‘문화강도 전북’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K-컬처 중심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전주 문화올림픽 유치에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문화인프라 확충에 힘을 싣고, 공연·전시·체험 콘텐츠 전반을 문화올림픽 기조에 맞춰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예술 창작 지원, 지역 관광 활성화, 생활체육 기반 강화,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 등 전방위 정책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전북 문화의 세계적 경쟁력도 한층 높여간다는 구상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북도는 올 상반기,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다듬는 한편, 도민 누구나 문화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데 집중했다.

문화도시 성과평가에서 완주·익산·고창이 우수도시로 선정되었고, 서예 분야에서는 국가공모에 선정된 ‘신진작가 전시’와 함께 14개 학교 대상 한글서예 교육이 병행되었다.

문화기반 시설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문화예술인회관은 지난해 착공 이후 공사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대

표도서관과 세계서예비엔날레관도 상반기 착공식을 마치고 본공사에 들어갔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설계 중이며, 도내 생활문화시설 27개소에 대한 정비·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공모사업 다수 선정과 특화 콘텐츠 개발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 기반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머무는 관광’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체험형 콘텐츠와 지역 특화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도는 3월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조례’를 제정·시행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외국인 대상 전북 투어패스 전용 상품과 교통할인 혜택을 도입해 인바운드 관광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올 상반기 체육 분야에서 국제대회 입상과 생활체육 확대, 인프라 확충까지 고르게 성과를 내며 체육강도의 면모를 입증했다.

하반기에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실행 기반 구축과 함께 문화·관광·체육·유산 전 영역에서 중점사업들을 본격화한다. 도는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서 문화올림픽 유치를 위한 실행 기반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정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하반기에는 전주 문화올림픽 유치 기반 마련에 더욱 집중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전북의 문화 핵심 아젠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AI시대 전북 콘텐츠산업 미래…JBCORECON 2025 포럼

JBCORECON 첫 포럼 개최
창작자·전문가 등 모여
AI 기술융합 등 전략 논의

전북자치도와 전북콘텐츠산업협회가 주최한 ‘JBCORECON 2025 포럼’이 10일 오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콘텐츠 산업의 핵심 주제로 떠오른 인공지능(AI) 기술과의 융합을 중심으로, 전북 콘텐츠 산업의 지

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JBCORECON’은 ‘CORE+CONTENT’의 합성어로, 콘텐츠를 중심으로 기술, 산업,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시도하는 민관 포럼이다. 2022년 출범한 전북콘텐츠산업협회가 주관하며, 올해 포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유관 기관도 공동으로 참여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행사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콘

텐츠 창작자, 관련 기업 관계자, 정책 당국자, AI 스타트업 관계자, 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 전북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포럼의 핵심 세션은 두 개의 기조대담으로 구성됐다. 먼저, AI 스타트업 ‘유티테크놀로지스’의 김태호 공동창업자는 ‘AI로 바뀐 콘텐츠 창작과 소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태호 공동창업자는 생성형 AI 기술이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전 분야의 콘텐츠 창작 과정에 미치는 혁신적 영

향을 설명하며, “창작자는 이제 기획자이자 큐레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과학 콘텐츠 유튜브 채널 ‘기발’은 ‘기술과 창작이 교차하는 시대의 콘텐츠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전북 콘텐츠 산업의 현실 진단과 함께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김성규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원장, 한동승 전주대 미래융합대학장, 설치희

‘프롬프트’ 대표, 그리고 두 명의 기조대담 발표자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조민호 협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서는 ▲우수 창작자 발굴 및 육성 체계 구축 ▲민관 협업 확대 ▲AI 기반 교육 및 기술 지원 ▲지역 콘텐츠 유통·마케팅 강화 방안 등이 다뤄졌으며, 특히 “콘텐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조민호 전북콘텐츠산업협회 회장은 “K콘텐츠 르네상스와 AI 시대에 맞는 창작 방식과 산업 모델로의 전환이 시

급하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전북이 콘텐츠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산업과 창작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끄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역의 정체성을 AI 기술과 접목시켜 새로운 융합 콘텐츠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며, “전북형 디지털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지 기자

JBT
전북타임스

전북의 소식은 전북타임스와 함께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3-9603
https://www.jeonbuktimes.co.kr

Your Jeonbuk,
Our Stories

피지컬 AI 382억 확보 전북 AI 선도 기회

정동영 의원, “세계적으로 선도국 없어 전북에 절대 유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전주시병)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마산합포구)이 공동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한 ‘(시즌2)AI G3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이 지난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AI 기반 영상 관제 기술, 피지컬 AI에 대해 논의했는데, 정 의원은 “피지컬 AI는 대한민국 AI 주권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황영규 알체라 대표는 ‘AI 보안 관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노동 집약적인 감시 환경의 대안으로 AI 기반 영상 관제 기술을 제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3년 6월 기준 25곳의 관제요원이 1인당 봐야 하는 CCTV 대수는 평균 1천27대이다.

이는 22년(764대)보다 34%나 늘어났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영상정보처리 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을 통해 ‘관제요원 1인당 50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보다 20배 가량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AI 기반 영상 관제 기술은 AI가 이상 상황을 선별하고, 실시간으로 포착해 사고율 감소와 보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미래 모빌리티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제조업에 적합한 피지컬 AI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의 ‘AI 도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평균 7.6%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 매출 역시 평균 4% 증가했다. 가장 AI 도입률이 높은 산업은 정보통신업으로 약 26%를 기록했다.

반면, 제조업은 4%에 그쳤다. SGI는 “제조업 중심 국가인 일본과 독일에서



도 기업의 AI 도입률은 낮은 편”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국내총생산(GDP) 내 제조업 비중은 2020년 기준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의 두 배에 달하고 수출 대부분을 제조업이 맡고 있다.

정 의원은 “피지컬 AI를 선도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PoC)사업” 예산 229억원(총 투자규모 382억, 국

비 229억(60%)+지방비·민자 153억원(40%))은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상훈 과기정통부 실장은 “과기정통부는 ‘미래 모빌리티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SW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에 내년부터 향후 5년간 6천억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며 “대상은 국내외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이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도선관위, 교육감 재선거 미 실시 결정

잔임기간·비용 발생 등 다양한 요소 감안해 확정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위원회의를 열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북선관위는 대법원 판결문(별금 500만원, 당선무효형)을 통지 받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됐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 10월 1일부터 임기만료일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잔임기간 △재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약 211억원) 및 행정 인력 수요(약 1만여명) △2014년 이후 시·도지사 및 교육감 재·보궐선거 사유발생 시 선거 미 실시 결정 사례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아동 권리 증진 ‘아동총회 전북지역대회’ 개최

전북자치도는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오는 12일 전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호텔에서 ‘2025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북지역대회’를 개최한다.

아동총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기반,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사회문제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아동의 권리 증진과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대회는 전북도가 주최하는 첫 아동총회 전북지역대회로 ‘디지털 환경 속 아동의 권리보장’을 주제로 진행된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선발된 60명의 아동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아동권

리교육 △결의문 도출을 위한 조별 모임 및 발표 △결의문 채택 △아동대표 선발 △결의문 전달식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지역대회에서 선발된 아동 5명은 전북대표단으로 구성돼 8월 5일부터 7일까지 국회도서관 등에서 열리는 ‘제22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 참가하게 되며, 전국의 아동들과 함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갖는다.

김정 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전북지역대회는 아동의 눈높이에서 디지털 환경 속 권리를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출된 정책 제안은 관련 부서와 협업체 검토와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자치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

전담조직·국비 확대 등 제도기반 마련

전북자치도는 10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실에서 열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를 위한 복지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제도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의 지역 실현 방안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주 도의원,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 원장, 박진희 우석대 간호학과 교수, 이종섭 전북연구원 박사, 강병은 전북자치도장애인복지관 관장,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돌봄정책의 법적 기반과 인력·예산 구조, 지역 특화모델 개발

및 민관협력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북희망나눔재단과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지역 돌봄정책의 방향과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성이순 도 고령친화정책과장은 “전북자치도는 고령화를 25.29%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현재 7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광역단위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지자체 인력 확보 △국비 지원 확대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통합돌봄은 공급자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정책이며,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실행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올해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2개 시군에서 7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기술·예산지원형 모델을 운영하는 등 제도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왔으며,

하반기에는 미참여 시군 대상 공모, 조례 제정, 읍면동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통합돌봄 기반을 더욱 체계화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장애영유아 지원체계·유보통합 정책 방향 모색

전주시 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기관장 연수

전국의 장애 전담 어린이집 원장들이 전북 전주에 모여 장애영유아 지원체계 강화와 유보통합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전북자치도는 10일부터 11일까지 전주 라한호텔과 전주시 일원에서 ‘2025년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기관장 연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회장 권영화)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원장 12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는 정책 토론과 시도별 교류 프로

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10일 진행된 분행사에서는 교육부 이병승 영유아교원지원과장,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이해연 사무총장, 권영화 협의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발달지연 및 장애영유아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이라는 제도적 전환기에 장애영유아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도 보완과 국가 차원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도는 도내 10개소의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며, 민선 8기

공약에 따라 유아 차액보육료 및 필요 경비 전액 지원, 차량 운전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보육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전국의 기관장들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는 2021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장애 영유아의 조기 재활과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 176개 장애전담어린이집 중 169곳이 가입돼 있다.

/김은지 기자

전북자치도, 임실 노후 교량 집중 점검

집중호우 대비 오수교 좌산교 위험 요인 확인

전북자치도는 10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임실군에 위치한 노후 교량인 오수교와 좌산교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조적 노후화가 진행 중인 교량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점검에는 오택립 도민안전실장과 이진관 임실군 부군수를 비롯해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임실

군 공무원, 안전관리자문단 토목분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했다.

오수교와 좌산교는 1980년대에 준공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교량으로, 구조적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보수·보강 공사가 이루어졌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사고 우려는 여전하다.

이날 점검에서는 △교량 바닥판의 균열 및 손상 여부 △반침의 손상 상태 △기초의 세굴 및 침하 여부 △배수시설의 막힘 및 손상 여부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전문

가의 기술진단과 육안점검이 병행됐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 교량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유지관리 및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오택립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반시설일수록 정기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도내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정읍시 공고 제2025 - 1237호

2030 정읍 도시관리계획(제정비) 결정(변경)(안) 주민 제공람·공고

정읍시 공고 제2025-96호(2025.01.17.)로 공람·공고한 ‘2030 정읍 도시관리계획(제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의견,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람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7. 11.

정 읍 시 장

1. 공람목적

- 2030 정읍 도시관리계획(제정비) 결정(변경)(안) 제공람
- 2025년 1월17일 공람 이후 관계기관 협의의견,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제정비) 결정(변경)(안) 일부가 변경됨에 따른 주민 제공람

2. 공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5. 07. 11. ~ 07. 25.
- 장 소 : 정읍시청 도시과(충정로 234, 4층)

3.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 서면(붙임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8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본 도시관리계획(제정비) 결정(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주민 의견청취로서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도시관리계획(제정비) 결정(변경)(안) 도서 : 계계생략(공람장소 비치)

농진청, 국내 가축유전자원 국제 정보시스템 등재

15자원 '가축다양성' 신규 등록 호로새 등 신규 축종도 올라 국내 독자 육종 자원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보존·육종한 6축종 15자원(품종·계통)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UN FAO)가 운영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새로 등재됐다고 10일 밝혔다.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은 세계 각국의 고유 가축유전자원 정보를 수집·관리·공유하는 국제 정보시스템이다. 현재 196개국과 4개 부속 영토가 보유한 39축종, 약 1만 유전자원이 등록돼 있다.

신규 등재 가축은 △소(축산물 한우) △돼지(산청흑돼지, K-자돈이, K-자돈이 백색) △닭(구엄닭, 고센닭, 청술 실키닭, 적갈색 재래종 GNU, 오계 SNU, 적갈색 재래종 SNU) △(진도개 황구, 삼살개 네논박이, 단양불개) △(창녕 토끼) △호로새(제주 호로새)다.

‘오계 SNU’, ‘적갈색 재래닭 SNU’, ‘적갈색 재래닭 GNU’는 각각 서울대학교(SNU)와 경상국립대학교(GNU)에서 보존·육종 중인 자원으로, 보존 기관명을 반영한 명칭이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지난 6월 24일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8자원을 대상으로 자

원 특성, 보존 현황, 생산성, 집단 구성 등 14개 항목을 심의해 최종 15자원을 선정했다.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우리나라 자원은 22축종 155자원에서 23축종 170자원으로 늘었다. 특히 호로새가 신규 축종으로 등록돼 의미가 크다.

‘진도개 황구’, ‘삼살개 네논박이’는 털색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존하고 있는 자원으로, 고유 품종 특성을 인정받아 등재됐다.

‘근친조절용 축산물 한우’는 국내에서 20여 년간 폐쇄 집단 내 근친을 조절하며 육종한 독립 계통인 점을 인정받아 등재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한만희 센터장은 “이번 등재로 우리 고유 가축유전자원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졌고, 유전자원 주권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자원 보존과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미래형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UN FAO) 산하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CGRFA)는 각국 국가조정관에게 등재 자원 등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이 국가조정관으로서 신규 자원 등록과 심의를 주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은 9일 지역 농촌 아동들에 의료지원금을 전달했다. <사진=전북농협>

전북농협, 농촌 아동에 ‘희망의 의료지원’

완주 등 12가정 의료비 전달 서울강남농협 후원, 상생 실천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9일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지부장 김대호)에서 의료지원이 절실한 농촌지역 아동에게 의료지원금을 전달했다.

전북지역은 12개 가정에 총 4800만원이 지원되며 완주지역 관내 5개 가정을 추천한 고산농협(조합장 손병철), 소양농협(조합장 유해광), 용진농협(조합장 이종진)이 참석해 상생가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의료지원금은 NH도농상생운동본부(대표 장문찬)가 주관하고 서울 강남농협(조합장 이종호)의 후원으로 실시하는 ‘희망이음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전달됐다.

한 가정 당 4백만원이 지원되며 중증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여러 어려움을 겪는 농촌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이음 의료지원 사업을 후원하고 있는 서울 강남농협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억5천만원을 NH도농상생운동본부에 기탁해 오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누적 231명 아이를 지원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농협조합장들은 한목소리로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어 너무 감사하다”며 “지역농협도 지역사회에 온정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항상 주의를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의료 인프라와 지원 부족 등 농촌생활의 어려운 여건에도 자녀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방면에 애쓰고 계신 부모님들을 응원한다”며 “자녀가 건강을 되찾아 농업·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귀한 인물이 되길 바라며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 전북농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농기원, 천적 방제로 작은뿌리파리 피해 줄여

‘뿌리이라응에’ 분양 현장 행정 천적 분양농장, 해충 40% 저감

최근 농가에서는 해충의 농약에 대한 내성으로 화학 방제 효과가 떨어져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IPM(통합병해충관리) 실현의 핵심 전략으로 천적이 주목 받고 있다.

이에 전북농업기술원 최준열 원장은 지난 9일 작은뿌리파리로 피해가 발생한 토마토 스마트팜 ‘로즈벨리’(익산 왕궁면, 1.0ha) 농가에서 천적 분양 후 반응을 청취하고, 천적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현장 행정을 실시했다.

토마토 양액 재배에서 문제되는 작은 뿌리파리는 4월 중순부터 5월 하순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유충이 코이어 배지 속 뿌리를 갉아먹어 싹발 경우 작물

이 시들어 죽는다.

이번 토마토 스마트팜에 분양한 뿌리이라응에는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증식한 것으로 작은뿌리파리 유충을 섭식(1~5마리/일)해 배지 속 해충만 쏙삭 잡아먹는 효과적인 천적이다.

뿌리이라응에 분양 후 1개월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작은뿌리파리 발생률이 천적 투입 전보다 40% 감소했다.

최준열 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천적 적용 현장 행정은 전북농업기술원의 천적 생산·보급 역량을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이후에도 작은뿌리파리가 많이 발생하는 9~10월에 뿌리이라응에를 재투입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함께 천적을 적극 생산·보급하고, 이를 활용한 전북형 스마트팜 IPM 기술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전북농업기술원은 자체 배양한 천적 총 560만마리를 우리지역



전북농업기술원은 지난 9일 작은뿌리파리로 피해가 발생한 익산 토마토 스마트팜 ‘로즈벨리’를 방문해 천적 적용 현장 행정을 실시했다. <사진=전북농기원>

농가에 무상 보급해 농가들의 천적 도입 장벽을 낮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은지 기자

중기부, AX 스타트업 90곳 집중 육성…中企 생산성 견인

AI 특화 지원사업 2차 공고 우수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 중기부는 ‘AI 산업 생태계’ 내에서 특정 산업과 기업 등에 유망 AI 스타트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AI 기술을 공급하여 생산성 증대와 경제·사회적 성과 등을 창출하는 핵심 도메인 AX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7월 11일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공고(2월5일)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3단계 프로그램의 1단계 ‘Micro-초격차’ 프로그램 중 ‘AI 스타트업 특화지원 사업’이 20: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관련 스타트업과 대기업에서 지속적인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등 현장의 높은 AX 수요를 반영해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추가·확대 편성했다.

AI는 기존 산업의 경쟁구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핵심 수단으로서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AX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AI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AI 스타트업 주도로 핵심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에 혁신 AX 기술을 확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생산성 증가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공고로 총 90개의 AX 스타트업을 선발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이오통 등 AX 기술을 통해 경제·사회

적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5대 핵심 도메인의 고도 기술을 보유한 혁신 AI 스타트업 50개사를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에는 도메인 AX 모델 개발과 기술 고도화 등 기술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도메인 특성에 따라 ‘인공지능융합사업단’ 등 주관기관의 컴퓨팅 자원, 실증장비 등 인프라 활용을 제공한다.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 다양한 도메인 AX 수요기관의 제품과 서비스 등에 AX를 적용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범용 활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AX 프로젝트’를 공동 수립한 유망 AI 스타트업 40개사를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에는 협업 자금 최대 1억원과 신규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한다.

이번 공고는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동 사업에 선발되어 지원 받은 스타트업 중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성과를 창출한 스타트업은 ‘26년도 ‘초격차 스타트업’ 사업으로 연계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다양한 산업 및 기업과 융합하여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는 AX 기술은 국가 경제의 핵심 분야로, 그 중심에는 특정 분야별 최적화된 기술을 보유한 AI 스타트업이 있다”며 “혁신 AI 스타트업의 AX를 활용·확산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농촌진흥청, 국산 여름딸기 평가회 개최

재배 안정성·수익성 평가

농촌진흥청은 오는 16일 ‘국산 여름딸기 우수계통 평가회’를 개최한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여름철 이상고온 환경에서도 안정 생산이 가능한 ‘복하’와 ‘미하’ 등 국산 여름딸기 사계성 품종 3종과 ‘대관 7-1호’ 등 품종 후보 계통 5종을 소개하고 재배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소재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진행한다.

국내산 딸기는 대부분 9월에 정식한 뒤 11월 말에 첫 수확해 겨울과 봄철에 집중적으로 출하되지만, 농촌진흥청이 보급하고 있는 사계성 품종은 여름철에도 생딸기 생산이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현장 평가회를 통해 농가와 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실용형 품종 개발 가능성을 진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02년부터 여름과 가을철 단경기에 출하할 수 있는 ‘무하’, ‘미하’, ‘고슬’ 등 여름딸기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무주, 경상남도 함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등 고랭지 지역에서 국내 재배 면적 약 40헥타르(ha)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며 여름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AI·딥테크 유니콘 키운다…모태펀드 5700억 조성

중기부, ‘NEXT 유니콘’ 신설 2차 출자사업 3100억 투입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 중기부는 모태펀드 2차 정식 출자공고를 통해 총 3,100억원을 출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약 57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5년 2차 추경으로 반영된 ‘NEXT UNICORN Project’를 통해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NEXT UNICORN Project’는 AI·딥테크 분야 유망 기업에 분절적인 뿌려주기식 투자를 넘어 성장 단계별로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스타트업’과 ‘스케

일업’ 분야에 총 3000억원을 출자하여 55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펀드는 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며 ‘스케일업’ 펀드는 AI·딥테크 분야 중소기업에 기업당 평균 100억원 이상 스케일업 투자를 지원한다.

특히 ‘스케일업’ 펀드는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공공기관이 우수성과 기업으로 추천한 ‘NEXT UNICORN Pool’ 기업에 중점 투자해, 창업·벤처지원사업으로 육성한 우수 기업의 스케일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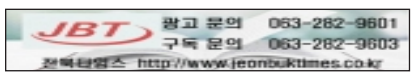
‘창업초기 소형’ 분야에 100억원을 출자하여 167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중기부는 올해 1차 정식 출자사업을 통해 ‘창업초기’ 분야에 총 995억원을 출자하여 1,699억원 규모 벤처펀드

를 조성 중이다.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167억원 규모 창업초기 소형 펀드를 추가 선정하는 것으로, 최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투자 마중물을 공급한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글로벌 AI·딥테크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AI·딥테크 벤처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첫 발을 댄 ‘NEXT UNICORN Project’가 빠르게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향후 모태펀드의 AI·딥테크 분야 투자를 확대해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은행, 우대금리 이벤트 씨드모아 파킹통장 ‘주목’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인기몰이 중인 파킹통장 ‘씨드모아 통장’의 우대금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씨드모아 통장은 일반잔액에 대해 2.2%의 기본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전북은행 첫 거래 고객에게 이벤트 우대금리 연 0.70%를 더해 최고 연 2.90%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이벤트 기간인 9월 30일까지 신규가입 시 △마케팅동의 0.2%, △매일의 최종잔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추가 0.5%로 가입일로부터 3개월간 제공한다.

또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돈을 넣었다 뺐 수 있으면서 매력적인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증권계좌 연동 통장으로 활용하거나, 직장인들의 생활비 통장으로 선택받고 있다.

/정혜민 기자



대한전문건설협 전북, 건설업 노무관리 강습회 열어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지난 10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전문건설업 노무관리(4대보험) 강습회’를 개최했다.

도내 전문건설업 대표 및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4대보험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는 기관인 (주)한국경영원의 전문강사진이 올 7월부터 개정·시행된 건설일용 및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노무관리 관련한 필수 신고 내용 및 4대보험 실무업무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회원사의 이해와 실무 대응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임근홍 회장은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사 건설 실무와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업체 운영 및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도교육청, 베트남 학생 18명 내년 3월 전북 고교 입학

베트남 현지서 선발 심사
2026년 3월 입학 예정

베트남 고등학생들의 전북 고등학교 입학이 가시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위해 9~10일 베트남 현지에서 1차 선발 심사를 실시했다.

선발 심사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도학교 교장 등 10여 명이 베트남 교육훈련부 국제교육개발센터(CIED)를 방문해 서류 및 면접 심사로 진행했다.

앞서 CIED는 지난 6월 30일까지 유학생 모집 및 접수를 완료하고, 총 48명의 지원자 중 25명을 전북교육청에 추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위해 9~10일 베트남 현지에서 1차 선발 심사를 실시했다 <사진=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선발된 학생들은 입학 전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 및 한국 생활문화 교

육'에 참여한 뒤 오는 11월 중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에 따라 원서 접수와 최종 면접을 거쳐 입학을 확정하게 된다.

입학 대상 학교는 도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도학교인 △글로벌학산고 제과제빵과·글로벌외식조리과·헤어미용과 △전주공업고 기계과·전기과·자동차과 △졸표자동차공업고 미래자동차과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은 전북교육청과 베트남 교육훈련부 간의 실질적인 교육 협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직업계고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양국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멸종위기종 올빼미 자연 방생

4월 구조해 재활 과정 거쳐

전북대학교가 운영하는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센터장 한재익)가 10일 익산시 금마면 미륵산 인근에서 구조해 치료를 마친 올빼미를 자연으로 방생했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야생동물 보호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함께해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방생된 올빼미는 지난 4월 20일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인근 도로변에서 어미를 잃은 채 시민의 제보로 구조됐다.

구조 당시 어린 개체로 탈진 상태였으며,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등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센터는 올빼미를 즉시 이송해 진료와 혈액 검사, 치료는 물론 비행 훈련을

포함한 체계적인 재활 과정을 진행했다.

회복을 마친 올빼미는 이날 방생과 함께 힘찬 날갯짓으로 자연으로 돌아갔고, 이를 지켜본 학생들과 관계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응원했다.

한재익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이번 방생은 단순한 구조와 치료를 넘어, 생태 복원이라는 큰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야생동물이 건강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개소한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을 포함해 매년 1,000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하고 있으며, 생태교육 프로그램과 시민참여형 보호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성민 기자

원광대에서 71개 대학과 함께하는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열려

오는 18~19일 원광대
대학별 상담·입시설명회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원광대학교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입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리는 이 박람회에는 전국 71개 대학이 참여해 △1:1 맞춤형 상담 부스 운영 △29개 대학의 입시설명회 △진학특강 등 대입전형 전반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틀간 3개 회차로 구분해 실시하며, 개막식과 진학특강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박람회 기간 중 4차례 마련되는 진학특강은 △면접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의약학계열 등 전형별·계열별 맞춤형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1회차는 18일 13:00~18:00, 2회

차는 19일 09:30~12:30, 3회차는 14:00~17:00 운영되며, 사전 예약 신청과 회차별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지만 박람회 당일 적정 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참여를 희망자는 전북 진로진학 누리집(<https://www.jbe.go.kr/jinro/>)에 접속해 신청한 뒤 접수증을 출력, 행사장 입장시 제출하면 된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다양한 대학의 입학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진학상담과 설명회를 통해 도내 수험생들의 대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 ‘재학생 맞춤형 경력개발 경진대회’ 시상식

정선우 학생 최우수상 영예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가 10일 전주캠퍼스 문화관 5층 화상회의실에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경력개발로드맵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진로 설정 능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총 50명의 학생이 참여해 직업포트폴리오를 제출했으며, 심사는 지난달 30일 내·외부 평가위원의 서면 평가를 통해 진행됐다.

심사 결과 정선우(간호학과 2년) 학생이 진로 목표의 명확성과 실현 가능성, 실행 전략의 구체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또한 이영훈(심리학과 1년) 학생 외 1명이 우수상을, 하현지(스포츠지도학과 2년) 학생 외 6명이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정선우 학생은 “진로에 대해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더 발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성민 기자

기전대, 전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선도사업 창업경진대회

예비 창업가 창업아이템 발표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단장 조덕현)은 지난 8일 2025년 전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선도사업 교육 수료생 대상으로 2025년 전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선도사업 초기사업비 지원을 위한 창업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전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선도사업 창업경진대회에는 예비 창업가들이 △전주 한옥마을 내 문화관광 팝업 공간, △전주의 관광지를 테마로 한 체험 기반 게임, △전주의 관광지를 여행

하며 추억을 남기는 사진 스냅 등의 창업 아이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날 진행된 창업경진대회에서는 전주 한옥마을 내 문화관광 팝업 공간 아이디어를 발표한 허OO 대표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한 예비 창업가들은 초기사업비 지원을 통해 앞으로의 사업 운영에 대한 의지를 제고했으며, 추후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 ‘두드림 챌린지 해커톤 경진대회’ 대상 영예

생명과학과 김서연 학생 수상

국립군산대학교는 10일 생명과학과 4학년 김서연 학생이 ‘2025학년도 JST공유대학 두드림(Do-Dream) 챌린지 해커톤 경진대회’에서 대상(1위)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커톤 경진대회는 JST공유대학이 주관하고 전북권 대학생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생명·바이오(푸드테크, 디지털농업, 메디컬·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김서연 학생이 속한 ‘plowdata(6조)’ 팀은 ‘소멸 위기 농촌, 살리는 법: 데이터 본 농업 활성화의 열쇠’라는 주제로 지능형 관련 공공데이터를 수집·정제한 후 지역별 농업 종사자 비율, 생산량, 인

프라 현황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 활성화 요인에 대한 다각도적인 통찰을 도출해냈다.

특히 Python을 활용한 정교한 데이터 전처리 및 시각화, 생성형 AI 기반 코드 분석과 설명 과정, 그리고 대시보드 구현의 완성도와 더불어 현실적인 정책 제안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구조 설계로 실현 가능성도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군산대 김서연 학생은 “이번 해커톤을 통해 실제 현장감 있는 분석의 흐름을 배우고, 다양한 관점에서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무엇보다 낯선 사람들과 짧은 시간 안에 협업하며 만든 결과물이 대상이라는 결실로 이어져 더욱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성민 기자

여름철 필수 교통안전 수칙



졸음운전 주의



차량화재 주의



빗길운전 주의



타이어 펑크주의

2025 군산국가유산야행, ‘야시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지역의 가족,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군산국가유산야행(8월 22일~23일, 8월 29일~30일)’ 야시(夜市) 프로그램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야행에서 선보이는 야시(夜市) 프로그램은 《동국문헌비고》(1770년)에서 볼 수 있는 임피 읍내장, 서시포장, 옥구 읍내장, 경포장, 지경장 등 6개의 장 중 포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경포장을 모티브로 한 ‘장터마당’이다.

시는 장터마당에 참여해 야행을 더욱더 다채롭게 꾸며 줄 ‘가족 보부상’과 ‘별별부스’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먼저 ‘가족 보부상- 우리집 진품명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추억의 소장품에게 새 주인을 찾는 아나바다 장터이다. 시는 여기에 참여할 가족들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1일당 10가족 한정이며, 총 40가족을 선정한다. 판매 물품은 3만 원 이내의 생활용품, 의류 장난감 등이며, 식품과 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

‘별별부스’에는 체면, 홍보, 판매,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가능한 지역의 기업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별별부스는 군산 국가유산 야행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동행을 위해 마련됐다.

가족 보부상과 별별부스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행사안내)을 참고하거나 군산 국가유산 야행 대행사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인화동 남부10호광장, ‘동이리광장’으로 새 이름

익산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인화동에 있는 ‘남부10호광장’의 대외 명칭을 ‘동이리광장’으로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상의 명칭은 기존대로 남부10호광장을 유지하며, 홍보·안내 등 대외적으로 동이리광장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은 공원이 있는 지역 정체성과 상징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더 쉽게 기억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명칭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 명칭 ‘남부10호광장’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당시 부여된 이름으로, 의미 전달력과 시민 인식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명칭 변경에 앞서 시민과 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동이리광장’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지역 지명을 활용한 이름이 정체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동이리’는 과거 전라선 철도역이 위치해 지역 교통과 생활권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오랫동안 시민에게 익숙한 명칭이다. 현재도 ‘동이리어린이공원’ 등 생활시설 이름에 널리 쓰이며, 지역민의 기억과 정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이번 명칭 변경이 공간에 대한 시민의 애착과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다자녀가구 대상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정읍시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놓고 있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시는 2024년 8월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의 혜택이 더 많은 가구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해당 가구는 매월 최대 9300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수도요금 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 번 신청하면 별도 갱신 없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고지분부터 혜택이 시작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전국 양궁 선수권 첫 유치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 대학생 선수 300명 참가

익산시가 전국 규모 양궁대회를 처음으로 유치하며 대학 양궁 최강자들의 격전지로 떠오른다.

익산시는 ‘제28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익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익산에서 처음 개최되는 전국 단위 양궁 선수권대회로, 한국대학양궁연맹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양궁협회가 주관한다.

전국 300여 명의 대학 양궁 선수들이 참가해 5일간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선수들에게는 실력을 겨루는 중요한 무대이자 미래 국가대표를 발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특히 원광대학교 양궁부 김영은 선수



2022년 대통령기 양궁대회

<사진=전북특별자치도양궁협회>

의 활약이 주목된다. 김 선수는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남·여 양궁대회 대학부 여자 개인전에서 당당히 3위를 기록하며 기량을 입증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대회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관람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

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규모 양궁대회인 만큼, 지역 스포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참가 선수 모두가 최상의 실력을 발휘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의회 “은파호수공원 악취, 뿌리 뽑는다”

녹조 제거·미세기포장치 설치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야기했던 은파호수공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며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9일, 김우민 의장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와 하수과,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등 주요 관계 기관들과 함께 모여 은파호수공원 악취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은파호수공원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오염원이 지목 됐으며, 이에 따라 시는 오염원의 유입 경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오수 및 우수 관로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호수 수질 개선과 악취 제거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악취의 주범 중 하나인 녹조 제거를 위해 제거제를 살포하여 제거하기로 했으며, 물속에 산소를 직접 공급하여 정체된 물을 순환시키고 악취를 저감하며 녹조 현상 개선에도 효과적인 미세기포장치 2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협

의를 통해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은파호수공원의 악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

김우민 의장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원인을 밝혀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두의 협력을 통해 은파호수공원이 앞으로도 계속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군산시의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황등·남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전문성 강화

민간위탁 전환 기념식 개최

맞춤형 복지로 질적 향상 기대

익산시가 지역 노인복지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어르신 복지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인다.

익산시는 10일 황등 및 남부권 노인복지관에서 민간위탁 기념식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지난 1일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장, 시의원, 권오국 신광재단 대표이사,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이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복지관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민간위탁 전환 조치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각 복지관은 기존의 시 직영 체제에서 민간 전문 기관 운영체제로 변경된다.

지자체 직영 복지관은 안정적인 예산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한계와 혁신적 서비스 도입의 어려움 등 개선 과제가 존재해 왔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 결과에서도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민간위탁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전환을

결정했다.

운영을 맡게 된 사회복지법인 신광재단은 익산시 노인복지관(2005년 개관)과 북부권 노인복지관(2021년 개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우수 복지관으로 평가받으며 운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민간위탁 전환으로 황등 노인복지관은 북부권 노인복지관의 분관, 남부권 노인복지관은 익산시 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된다.

시는 민간위탁의 장점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 후원 유치 및 공모사업 대응력 강화 등에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愛(애) 함께 살기”…인구사랑 범시민운동 확산

지역 농협 동참

정읍시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개 중인 ‘인구사랑 범시민 운동’에 지역 내 농협이 동참하며 확산 분위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시민이 힘이다! 정읍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사랑 범시민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칠보농협(조합장 권순준), 신탄인농협(조합장 황희중), 황도현농협(조합장 유흥기)이 동참하며 캠페인 확산에 힘을 보탰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 10만 명 이상 유지와 생활인구 월 5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정읍愛 주소갖기(전임 유도) △정읍愛 머무르기(체류인구 확대) △정읍愛 함께살기(외국인 정주 지원) 등 3대 중점전략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인구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실거주 미진입자의 전입 유도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시민과 지역 기관·단체 모두가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지역 농

협은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협력 사업 등을 바탕으로 로컬 특화 전략을 함께 추진하며 정읍의 인구회복과 활력 회복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본격

민간참여자 공모

익산시가 ‘만경강 수변도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9일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민간참여자 공모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수변도시 조성은 만경강 북쪽 남부지구 일원 141만㎡(약 43만평) 규모에 다양한 정주기능을 갖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다.

청년과 은퇴자가 함께 살아가 수 있는 주거공간 등 강변 조망을 갖춘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은 익산시와 민간참여자가 공동 출자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TV)를 통해 추진된다. 총 설립자본금은 50억 원으로 공공시행자인 익산시가 51%, 민간참여자가

49%를 출자하게 된다.

전체 사업비는 민간이 전액 부담하며, 익산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초과이익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납입돼 향후 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된다. 이로써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민간참여자로 2개사 이상 10개사 이하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모집한다. 오는 23일까지 사업참여의향을 접수하고, 오는 10월 17일 최종 사업신청서를 제출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1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참여자 모집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2025년 청렴 약속 데이’ 행사 개최

투명한 조직문화 다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10일 다양한 청렴 행사를 진행하며, 청렴도를 높이 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확산할 것을 다짐했다.

먼저 군산시는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2025년 청렴 약속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와 양 노동조합이 공정한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전 직원이 청렴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행사를 본 후 “이번 ‘청렴 약속 데이’와 ‘청렴 골든벨’은 군산시와 노동조합이 한뜻으로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은 시민 신뢰 회복의 핵심이며, 우리 모두가 솔선수범해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하는 청렴 실천에 최선을 다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청렴 도시 군산’을 만들어가자”라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폭염 속 취약계층 보호 총력

정읍시가 폭염에 취약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선풍기와 냉방물품 지원, 현장 방문 등 맞춤형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대응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핵심은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행정적 관심과 실질적 지원에 있다.

먼저 시는 폭염에 취약한 세대 690가구에 선풍기를 지원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보다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또 728개소 경로당에

는 읍면동장이 수박과 커피를 직접 전달해 무더운 날씨 속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폭염 대응 요령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복지 통합꾸러미’도 배부한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담은 리플릿을 동봉해 필요한 상담을 안내하고,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앞으로도 폭염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주소정보시설 5만여 개 전수조사 완료

군산시가 관내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도로명판·건물번호판·기초번호판·사물주소판 등 53,43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물류 배송, 응급구조 활동 등 정확한 위치 확인의 핵심 요소인 주소정보시설을 점검하고, 강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설치 상태, 훼손 여부, 안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조사 과정에 낙하 위험이 있거나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은 안전조치도 완료했다. 또한 재설치 및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연내 정비를 완료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 농산물, 소비자 품질만족 ‘대상’

멜론·땅콩·미니수박
소비자 선정 품질만족
농특산물 부문 대상 수상

고창군의 멜론, 땅콩, 미니수박이 1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16회 2025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농특산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고객만족을 위한 끊임없는 품질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 구현에 앞장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최고의 품목에 수여된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재배되는 고창 멜론과 땅콩은 각각 9년 연속, 8년 연속 더불어 고창 미니수박은 2년 연속 수상하면서 명실상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고창 농산물의 가치를 드높였다.

고창군은 멜론을 최고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토양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최고품질 멜론 재배력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최우수상 수상, 2023년 농촌진흥청 주관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고창군의 멜론, 땅콩, 미니수박이 ‘제16회 2025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농특산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고창군>

상 수상, 싱가포르와 홍콩 수출 등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또한 고창군은 땅콩 주산지로 재배면적이 전북의 75%인 380ha에 달하며 농가 수는 900여 농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창 땅콩은 미네랄과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해 황토 땅에서 많은 일조량과 서늘한 해풍을 맞고 자라 고소한 맛이 특징이고 선명한 표피 색깔로 국산 땅콩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고창군은 오랫동안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수박을 이어갈 품종으로 미니수박을 고소득 작목으로 선정, 2017년부터 각종 시범사업과 교육을 추진해 왔다. 또한 2022년에는 고창군 6개 작목반이 하나로 묶쳐 고창미니수박연합회를 결성했으며, 2024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025년 기준 전국 면적의 약 15%를 차지,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사자탑·금구리 상권 활력 스타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10일 사자탑 교차로와 금구면 소재지 상권을 각각 김제 2호, 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고 하나의 상인회가 구성된 지역이 대

상이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자탑 골목형상점가는 사자탑 교차로에서 중앙시장 방향으로 이어지는 상권으로, 병·의원을 중심으로 총 49개 점포가 이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금구리 골목형상점가는 금구면 소재지에 위치한 식당 밀집 상권으로,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구역에 총 71개 점포가 포함됐다.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에서 온누리상

품권 사용 시 기본 1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현금영수증 활용하면 최대 20% 할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사업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 백산누리센터, 문화 중심지 ‘첫 발’

주민 중심 자생적 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 기대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10일 백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핵심 시설인 ‘백산누리센터’ 준공식을 열고 농촌 복지·문화 중심지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백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21년부

터 5년간 추진됐다.

총 40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복지·문화 복합공간 조성과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경관 정비 등이 종합적으로 진행됐다.

‘백산누리센터’는 다목적 강당, 공동세탁실, 공유주방, 동아리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다.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요를 반영해 설계됐으며, 향후 백산면 중심지 기능을 수행할 핵심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제시는 이번 센터 준공을 통해 백산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중심의 자생적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백산누리센터가 마을 활력을 회복할 생활거점이자 세대가 어우러지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전북권 4대 도시, 웅비하는 김제” 실현을 위한 기반을 하나씩 차근차근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선정

김미경 주무관 ‘변산마실길
현장운영’ 최우수사례 선정

부안군은 지난 9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한 창의적·적극행정 사례와 더불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함께 발굴하며 적극행정의 다양성과 실천력을 더욱 높였다.

각 부서에서 추천한 적극행정·협업 우수사례 43건 중 심사위원이 6건의 사례를 선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군민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이끈 우수공무원의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심사 결과 환경과 김미경 주무관의



‘변산마실길 야생화단지 관광객 비상 대응과 협업으로 현장운영 총력’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사례는 변산마실길을 생태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스태 이미지 등 야생화단지를 확장 조성하고, 관광객 유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 점

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환경과를 중심으로 변산면, 관광과, 새만금간척박물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관광객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응한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안=신상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무공수훈자회 명예회원 위촉

보훈문화 확산 기여 인정

심덕섭 고창군수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명예회원으로 위촉됐다.

지난 9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경규 회장과 이현우 사무총장, 윤환 전북지사장, 성홍제 고창군지회장 등 무공수훈자회는 고창군청을 찾아 심덕섭 군수에게 명예회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무공수훈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고창군의 지속적인 노력과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고창군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강화를 위해 호국보훈수

당 단계적 인상,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 위탁요양병원 지정 추진, 보훈회관 신축(11월 준공 예정) 등 다양한 보훈사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무공수훈자회의 명예회원으로 함께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호국보훈의 정신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본회, 전북지부, 고창군지회는 10일 선운산 일원에서 역사문화 탐방을 실시해 고창의 문화자원을 체험하고 지역과의 유대를 더욱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백종규 기자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 준비 ‘착착’

연출계획 보고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10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 연출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축제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주요 콘텐츠를 공유하며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관광지 벽골제를 중심으로 김제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슬로건인 ‘축제의 빛, 지평선을 밝히다’를 반영해 새로운 공간 구성과 가족

친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야간에도 즐겁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로 개최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벽골제 신정문 새빛 광장은 축제장 입구부터 조명과 LED 미디어아트 등을 활용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으로, 단순한 입구 기능을 넘어 야간 명소이자 포토존,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되며, 축제 전반의 분위기를 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보고회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유기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18일까지 방법용 CCTV 전수조사

고창군이 주민 생활 안전 향상과 촘촘한 방법망 구축을 위해 관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방법방법용 CCTV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고창군 전역에 설치 운영중인 마을방법용 CCTV에 대한 설치 현황과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을 방법 CCTV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마을방법 환경 개선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조사 결과는 신속한 고창 수리, 노후 장비 교체, 추가 설치 필요 지역 발굴 등 마을 방법 CCTV의 체계적 운영 관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안전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기반 작업”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마을 단위의 방문조사시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피서객 무사고·무재해 기원제 열어

고창군이 여름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피서철 안전사고 없는 해수욕장 운영을 기원하는 ‘해수욕장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이번 기원제는 10일 오전 동호해수욕장과 구시포 해수욕장에서 열렸으며,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고창군의회 군의원, 지역주민, 소방·경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무사고·무재해를 기원했다.

기원제에서는 마을 대표의 고사 진행과 함께 바다에 제를 올리는 의식 행사로 해수욕장 인근 청결활동 및 안전점검을 마쳤으며 해수욕장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고창군은 이날부터 8월18일까지 구시포·동호 해수욕장을 본격 운영한다.

안전관리요원 및 수상오토바이 배치, 관계기관 합동 순찰, 행정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철저한 해양안전관리에 나선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안전기원제를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한마음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름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초등학교
문해력 향상 캠프 수강생 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립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인 ‘생각이 쑥쑥! 문해력 성장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해력을 전문강사와 함께 놀이를 통해 쉽고 재밌게 배워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독서교실은 오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동안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시립도서관 5층 배움터3에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2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생 모집은 오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8일 금요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립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생들의 문해력 향상과 사고력 성장을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재미있고 유익한 활동으로 즐거운 독서교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폭염 대응
가로수 생육관리 강화

고창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최근 식재된 가로수와 도시숲 내 수목 보호를 위한 ‘수목 물주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물주기 작업은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생육이 불안정한 최근 식재 가로수를 중심으로 물주기를 실시한다. 시내권에 조성된 도시숲과 일부 가로수에는 물주머니를 설치해 지속적인 수분공급에 나선다.

고창군 산림복지과 관계자는 “폭염 속에서도 푸른 도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며 군민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동진면지사형, 어르신
삶의 기억 소통 프로그램 운영

부안 동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전종각)는 7월 한 달간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기억과 감정을 나누는 ‘그림책, 나의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림책, 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독서 활동을 넘어, 그림책 속 주제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르신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활용된 그림책은 어린이용이 아닌 성인 대상의 주제 중심 작품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이야기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르신들은 그림책의 한 장면 한 장에서 자신의 추억을 꺼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공감과 위로가 오가는 정서적 소통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특히, 경로당이라는 친숙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참여자 간 관계 형성을 돕고,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전종각 동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그림책, 나의 이야기’는 어르신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기억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의 정서적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공감과 소통이 있는 지역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진면사무소(면장 최정예)는 동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돌보고,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순창, ‘관광 쿠폰북’으로 지역경제 상생

관광객 혜택·체류 시간 증가
지역 소상공인 신규고객 유치
28개 업체 참여…지속 확대

순창군 출연기관인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이 지역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로 ‘관광플랫폼 쿠폰북’을 선보였다.

이번 쿠폰북은 관광 소비를 보다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와 지역 기반 상생 모델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재단은 순창발효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쿠폰북을 배포하고 있으며, 쿠폰북에는 숙박업소, 음식점, 체험시설, 카페 등 총 28개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 업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쿠폰북을 소지한 관광객은 각 업체에서 할인, 증정, 체험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광객 입장에서 실



순창발효관광재단이 지역 관광객 체류 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모색하는 새로운 모델 ‘관광플랫폼 쿠폰북’을 선보였다. <사진=순창군>

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 쿠폰북은 단순히 할인권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다양한 관광 동선과 소비처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돼 관광객의 체류 시간 증가와 지역 내 소비 분산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이는 기존 주요 관광지에만 소비가 집중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곳곳의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매출 효과를 제공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재단은 발효테마파크 안내시설은 물론 외부 축제 및 행사 부스를 통해 쿠폰북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참여 업체 확대와 운영 효율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관광플랫폼 쿠폰북은 관광객에게는 유익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설명회 개최

정부 공모선정 통합형 관광사업
농촌관광 브랜드 ‘누비GO’ 시동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 9일 남원시 농업인상생플랫폼에서 농업·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식사·숙박이 어우러진 농촌여행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원시와 사단법인 남원활력만들기센터에서는 2년간 국비 1억 2천만원을 포함한 총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원의 농촌관광 브랜드 “누비GO”를 주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존 숙박형 농촌관광을 벗어나 특색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자 농어촌민박, 6차산업 경경제, 체험마을 등 다양한 농촌관광 경영체



남원시는 지난 9일 남원시 농업인상생플랫폼에서 농업·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남원시>

대상으로 진행됐다. 바쁜 농번기 와중에도 30여 명이 직접 현장을 찾았으며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동시 진행해 8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설명회는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의 이해, 사업 추진현황 및 비전, 지원내용 및 협업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를 기점으로 선발된 농촌

관광 경영체에게는 ▲상품기획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역량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만의 독특한 이야기와 가치를 담은 고품질 농촌관광 상품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전국 최초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 통해
초등부터 대학까지 후원

완주군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입양아동의 초·중·고·대학교 입학 축하하고 격려하는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완주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정기부금 모금(목표액 1,000만 원)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며,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정착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정기부금금은 지역민과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2025년 1월 모금을 시작해 모금기간보다 훨씬 이른 4월 말에 목표액을 달성했다.

이번에 지원대상이 된 입양아동은 총 11명으로 초등학생 1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명, 대학교 신입생 4명이다.

대상자들은 자격기준(의료급여 대상)을 충족한 입양가정의 자녀들로 구성됐으며, 입학축하금은 입학단계별로 초등 40만 원, 중등 60만 원, 고등 80만 원, 대학 100만 원씩이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전달된다.

군은 지난 5일 입양가족들을 위한센터 개소식 및 장학증서 전달식을 통해

아동들에게 입학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꿔주는 입양이 또 다른 가족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입양특례법’ 제35조 및 ‘완주군 입양가족 지원조례’ 제5조에 근거해 추진되며 위기관리부 보호확산과 2025년 7월부터 국가·지자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입양체계 전환의 흐름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 선정

건강정책 통계 생산 참여
영양·만성질환 등 전수조사

완주군이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으로 선정됐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행태, 만성질환유병현황, 식품 및 영양섭취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50여 개의 국민건강통계를 담고 있는 법정 조사다.

전국 192개 지역의 1세 이상 가구원 모두를 조사하는 방식이며, 확률 표본으로 지정된 봉동읍 둔산리 산정마을 25가구가 지난 8일부터 시작해 4일 동안 국가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생산에 참여한다. 조사는 질병관리청 만성질

환사업과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소아(1~11세), 청소년(12~18세), 성인(19세 이상)으로 나눠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 등 각기 특성에 맞는 조사 항목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군은 폭염 속에 참여자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의 위험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1월에는 구이면 4개 마을이 선정된 상태로 추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명란 건강증진과장은 “우리 지역에서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가 반영돼 국민 전체의 건강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국민권익위와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10일 순창읍 행정복지센터서
주민 고충 현장 해소 나서

순창군은 10일 ‘2025년 달리는 국민신문고’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 민원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순창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상담 조사관 13명과 한국소비자원, 서민금융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 상

담관 4명이 참여해 총 17개 분야의 민원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에는 생활법률, 재정세무, 산업농림, 복지노동 등 여러 분야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일부 민원은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된 고충으로, 현장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안내받기도 했다. 또한 접수된 민원 중 일부는 현장에서 바로 처리되거나 후속 조치로 연계돼 신속 대응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익위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민원 상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공모 선정 전통 도예작 전시

‘명품관광지’ 공예품 당선작
임경문 도예가 작품 37점

완주군이 오는 9월 30일까지 2025년 명품관광지 하반기 공예품 공모전시 당선작 전시 ‘K-명품 공예, 전통의 향기展’을 삼례문화예술촌 제4전시관에서 갖는다.

지난 상반기 ‘폐자원의 활용’ 전시 주제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통 공예’를 주제로 열린 공모전에서 선정된 임경문 도예가의 작품 37점이 전시된다. 고려청자에서 조선 분청사기, 백자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전 전통의 혼과 숨결을 장인의 기술로 재현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임경문 도예가는 완주군 화심리 전통 가마에서 38년 가까이 전통 도자 재현에 매진하며 화심리 출토 유물뿐 아니라 국내외 주요 유물들이 만들어진 옛 도공 방식으로 장작 가마 중심의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외국인 도예가를 대상으로 하는 완주군 화심도요 워크숍을 준비하는 등 옛 전통 도예 기법을 선보이고 지속적으로 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서진순 문화역사과장은 “우리 공예의 전통을 계승하고, 장인의 정신으로 다듬어진 작품의 정성과 솜씨, 기품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 전수조사

위기가구 조기 발견 복지 연계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6월 한 달 동안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지된 기초생계·의료급여 중지가구 1,079세대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급여 중지로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남원시에서는 상반기에도 선제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확인조사로 급여가 감소되거나 중지된 943가구에 대해서도 사후조사를 통해 91가구에 대해 복지서비스 재신청, 823가구에 대해서는 방문·전화상담 등을 통해 민간 자원 연계 등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어르신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행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025년 국도비보조사사업으로 선정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한글햇살버스’를 총 14회(7월~8월)에 걸쳐 덕과면 한글학당 및 남원시장에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다.

‘한글햇살버스’ 프로그램은 강사가 경로당 및 복지관 등 정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디지털 문해교육을 진행하는 성인문해교육 신규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기기 사용법뿐 아니라 금융사기 예방법, 온라인 정보 검색법, 사진 및 영상 활용법 등 실생활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 키오스크, 모바일 앱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중심으로, 교육 강사가 직접 경로당과 복지관에 찾아가 수업을 진행한 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다. 이번 ‘한글햇살버스’로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가 교육을 통해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산업단지 유희공간
감성 문화 축제 ‘썸존’ 탈바꿈

완주문화선도산단이 산업단지 내 유희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이색 축제를 선보인다.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완주군 봉동읍 현대자동차 인화관 일원에서는 ‘컬처썸(Culture썸), 썸 타는 문화가 있는 날’이 개최된다.

컬처썸(Culture썸), 썸 타는 문화가 있는 날은 산업단지 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 주최, 완주군과 완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의 일환으로 반복적인 일상에 지친 산단 근로자와 청년,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쉼과 문화적 활력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은 심리극을 기반으로 한 소셜 콘텐츠 썸존이다. 썸 타는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주제 아래, 참여자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교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썸존’에서는 자기소개 클래스, 1:1 대화, 연극 기반 심리검사 등 심리적 연결을 돕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또한 지역 작가와 셀러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이 함께 열린다. 포스터를 잡아라, 신작순 경품 이벤트, 당근마켓 쿠폰 인증 이벤트 등 관광객 참여형 코너도 운영되어 축제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인디밴드 공연, 마술쇼, 놀애플 카테일 바 등 감각적인 무대 콘텐츠와 힐링 요소들이 어우러지며 개막식과 함께 지역 예술가들이 펼치는 다양한 퍼포먼스도 펼쳐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춘향 씨감자’ 160톤 수확
9·10월 시설농업인에 보급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해발 450m 내외 고랭지 지역에서 규격에 맞는 ‘춘향 씨감자’(규격서) 160톤을 생산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시설감자 농업인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급층 춘향 씨감자는 원종 감자를 3월 정식한 뒤 수분공급과 시기별 약제를 사용하여, 단계별 바이러스 감염 여부, 기타 병해충 감염 등 강원도 보급종과 동일한 생산 체계를 유지하면서 생산하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포장에 통망사를 설치하고 격리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종자검사를 2회에 걸쳐 수행하는 믿을 수 있는 우량종자이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남원 운봉 춘향씨감자 저온큐어링센터 선별장에서 크기, 모양, 무게 등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종자를 선별하여 90일의 휴면기를 충분히 거친 뒤, 고품질 씨감자를 오는 9월~10월에 시설감자 농업인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의의회, 국정기획위에 통합반대 의견서 전달

국정기획위 군산 방문 맞춰
“통합, 실익도 명분도 없어”

완주군의의회(의장 유익식)는 1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군산시에서 개최한 국민 소통 프로그램 ‘바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현장을 방문해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완주군의의회 완주-전주통합반대 대책위원회 서남읍 위원장과 이주갑 부위원장은 완주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 자격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 국정

기획위원회 관계자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군민의 우려와 입장을 면밀히 설명했다.

의견서에는 ▲절차적 정당성 부족 ▲주민 의견 수렴 미비 ▲지역 균형발전 역행 ▲지방자치 훼손 우려 등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이 담겨 있다. 특히 완주군의회는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의 현장 소통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키려는 주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촉구했다.

서남읍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핵심

은 주민의 뜻이며, 그 의사를 철저히 반영하지 않은 통합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강조하며, “국정기획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청취하고, 신중하게 국정에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갑 부위원장은 “완주군민은 삶의 터전을 지키고 지역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으며,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이러한 노력과 자긍심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완주군의회의 입장은 군민의 뜻 그 자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래상담 연합회' 발대식 개최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일신)는 지난 9일 관내 또래상담자와 상담교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또래상담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또래상담은 상담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은 청소년 또래상담자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지지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활동으로, 올해는 노암초, 용복중, 인월중, 제일고, 남원여고, 경마축산고 등 총 6개 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모여 '또래상담 연합회'를 구성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OCI(주) 군산공장, 녹색노인에 선풍기 50대 전달

OCI(주) 군산공장(공장장 심재엽, 군산노동조합위원장 장육남)이 무더운 여름을 대비해 소용동 행정복지센터에 선풍기 50대(3백만 원 상당)를 기탁하며 지역사회의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선풍기 후원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관내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마련됐다. 후원된 선풍기는 지역사회 내 필요한 가구에 전달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연지동, 얼음생수 나눔 "더위 식히고 가세요"

새마을지도자 연지동협의회(회장 은종광)는 지난 8일부터 '얼음생수 무료 나눔' 활동을 시작했다. 때 이른 폭염 속 건강이 위협받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무더운 여름에 자칫만 큰 위로가 되고자 마련된 활동이다.

생수는 연지동 잔다리목 사거리 삼성CCTV 앞(정읍시 서부산업도로 344)에 비치된 냉장고를 통해 무더위가 끝날 때까지 제공된다. 시민들은 지나가다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씩 자유롭게 꺼내 마실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의회 김승범 의원,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겸손히 일하겠다"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김승범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로부터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지방의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승범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구절초 지방정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절 테마형 정원 과 산림복지 문화공간으로의 변화를 제안하였으며,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제안과 시정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상 소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의 상이다"며 "앞으로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숙원사업 해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전북은행, 김제시 취약계층에 삼계탕팩 600개 기탁

무더운 여름 건강한 나눔 실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0일 전북은행 본점이 삼계탕팩 600개(금 4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에는 전북은행 김제지점 김범식 지점장, 김선화 부행장, 강장오 리스크관리부장, 이금자 여신감리부장, 임진아 신용분석실장, 허경아 데이터분석부장 등 은행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의 이번 후원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취약한 김제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나눔의 일환으로, 정성껏 준비된 삼계탕팩은 신속히 사회복지관에 전달되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김범식 지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이웃분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완주군, 2025년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해단식

완주군이 10일 중앙도서관 3층 강당에서 '2025년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해단식'을 개최하고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독서 나눔에 헌신한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1월부터 모집된 실버세대 문화봉사자 21명과 봉사활동에 참여한 22개 기관의 기관장 및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유희태 완주군수도 참석해 문화

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대표 봉사자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주신 봉사자 여러분의 헌신이야말로 완주군의 큰 자산"이라며 "책을 매개로 한 정서적 나눔이 지역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주)극동, 군산시에 1,000만 원 이웃돕기 성금 기탁

군산시는 (주)극동(회장 오순영)이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성금으로 1,000만 원을 10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군산시 가족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보강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본회원은 지역사회의 돌봄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89년 설립된 웬스 설계·제작·시공 전문 기업으로 기업 경쟁력 뿐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오순영 회장은 "이번 지원이 아동과 가정을 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재향군인회, 호남중 학생들과 안보의식 되새겨

정읍시재향군인회(회장 이상행)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안보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안보교육을 호남중학교에서 진행했다.

재향군인회는 지난 9일, 호남중학교 1·2학년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유명별 안보교수를 초청해 '우리 시대 최고의 가치, 안보'를 주제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힘없는 민족은 역사에서 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됐다"며 "앞으로 학생으로서 본분에 충실하고 통일과 안보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부안 하서면-자원봉사센터,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운영

부안군 하서면과 부안군자원봉사센터는 여름철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9일 하서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이동세탁차량 '뽀송이'를 이용해 이동빨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부안군자원봉사센터 봉사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관내 경로당과 노인가구의 침구류를 수거하여 세탁·건조 후 배달까지 해줌으로써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 신풍동지사협, 취약계층 25세대에 선풍기 배달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호길)가 10일,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 25세대를 직접 방문해 선풍기를 전달하며 여름철 이웃 돌봄에 나섰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한 가정 한 가정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묻고, 선풍기를 전달하며 생활상 어려움도 함께 살폈다.

/김제=온봉기 기자

물놀이 꼭! 안전수칙 지키며

첫번째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필수!

두번째

어린이의 경우 사탕이나 껌을 먹으며 수영금지

세번째

안전시설, 요원의 위치, 위험지역 미리미리 파악

네번째

음주 후에는 입수는 절대 금지!!

〈一事一言〉



지금 필요한 건 AI디지털교과서 아닌 AI교육(1)

강민정
전 국회의원

최근 오보로 판명되면서 몇 시간 만에 번복되긴 했지만 새 정부 AI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정책이 교육계를 긴장시켰다. 교육부장관 후보의 인사청문 준비 중인 일성이 AIDT 긍정적 검토였던 것이 이런 교육계 반응을 기를 부른 게 아닌가 싶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공약은 AIDT를 폐지하고 ‘교육자료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교육을 고민하는 거의 모든 이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기도 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이를 입법화했으나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다가 다시 발의되어 현재 교육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AI시대 AI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고, 교과서를 아예 AI로 만들어 쓰면 더 확실한 AI교육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주호 윤석열 정부 교육부장관은 이런 다소 표피적이고 단순한 논리로 국민설득이 가능하다 믿고 자신만만하게 AIDT를 밀어붙였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AIDT의 수준에 있지 않다. AI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교과서’라는 것이 진짜 문제다. 교과서는 아이들 학습의 기본교재다. 국가가 정한 공식 교육과정을 전달하는 핵심매체다. 교과서는 여러 교재 중 하나지만 전국 공통의 필수교재다. 전국 1만 1800여 모든 초·중·고 학교에서 500만이 넘는 우리 아이들이 12년 동안 사용한다.

최근 AI교과서를 이렇게 초단기간에 만들어낼 정도였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시라. 하도 공금해 AIDT 연수에 참석해 보았다. 당시에는 완성본이 없어 프로토타입이었지만, 학습지 업체들이 이미 상용화하고 있는 디지털 학습기기 수준에 단지 학생 학습이력 통계로 교사가 전체 학생 문제품이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생 성된다는 점이 부가되었을 뿐이다. 맞춤형 개별화교육이라면서 단순 구분된 난이도에 따라 문제 풀이를 반복하는 수준이다.

이는 거의 빛의 속도로 일괄적으로 밀어붙인 AIDT 제작일정의 필연적 결과다. AI 교과서의 교육적 효과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무엇이 AI교과서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커녕 최소한의 교육 전문가와 AI전문가 내 논의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부터 만들어냈으니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AIDT의 수준에 있지 않다. AI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교과서’라는 것이 진짜 문제다. 교과서는 아이들 학습의 기본교재다. 국가가 정한 공식 교육과정을 전달하는 핵심매체다. 교과서는 여러 교재 중 하나지만 전국 공통의 필수교재다. 전국 1만 1800여 모든 초·중·고 학교에서 500만이 넘는 우리 아이들이 12년 동안 사용한다.

윤석열 정부 이주호 장관은 전국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의 과목을 AIDT로 공부하게 할 계획이었다. ‘디지털 대전환시대 교육현장을 변화시킬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AIDT 도입을 추진했다. 교육계, 무엇보다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도입 첫째 적용 교과목을 축소하고 속도를 좀 늦췄을 뿐이다. 이제 정치상황이 변해 계획 실현이 어려워졌지만, 이주호 장관 계획대로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국 모든 아이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종이교과서 대신 디지털 기기를 앞에 놓고 학습을 한다.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종이책 교과서를 ‘읽는’ 대신 기기 화면을 ‘보고’, 무언가를 ‘쓰는’ 대신 ‘클릭’을 한다. 아이들은 선생님 설명을 듣고 옆 친구와 대화하는 대신 기기 화면에 집중해야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는 이제 교실에서 사라지거나 보조적인 활동이 된다.

유초중등교육은 지식을 매개로 관계맺기를 배우는 일이다. 공교육을 보통교육이라 하며 교육기본법에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규정한 이유다. 심지어 지식 습득 그 자체조차 교사가 설계한 수업설계에 따라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즉 관계맺기 속에서 이루어진

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재는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교사 자신이다. 교사는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수업을 설계하며 이를 실행하는 주체다. 같은 교과서로 가르치지만 전국 모든 교실 수업이 다른 것은 이 때문이다. AIDT 전면화로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사라지고 교사는 아이들이 기기

로 학습하는 일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AIDT에서 설계되어 이루어지는 아이들 간 디지털 협력학습도 네트워크를 통한 간접적 관계형식을 통해 이루어질 뿐이다. 이제 교실에는 관계를 통한 학습활동은 사라지고 기기와 각각의 아이들이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디지털 역량 격차가 또 다른 학습격차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현재 불완전한 학교 디지털 교육환경이 모두 해결된다고 해도 그렇다는 말이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민생회복 소비쿠폰, ‘회복의 불씨’로 살려내자

이재명 정부가 이달 중순부터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본격 가동되면서 전북자치도 역시 이에 발맞춰 전남 TF를 출범시키고 집행 준비에 나섰다. 이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복합 목표를 가진 중요한 정책으로, 집행의 정확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 맞춤형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텁고 차별화된 지원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지난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하며 일반 도민은 15만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전주, 완주, 군산, 익산 등 대도시 주민은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전북 전체적으로는 173만명이 지급 대상이며 이는 도민의 대다수가 수혜를 받는 ‘전 도민 참여형 민생 정책’이다.

이번 정책의 성패는 지급 속도와 범위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지역 상권 회복에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역 전통시장과 중소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비 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정책이 ‘정책적 복지’를 넘어 ‘경제

정책 재도약’의 촉매로 기능할 수 있는 이유다.

그러나 집행 과정에서의 혼란, 정보 부족,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고령층, 디지털 소외계층 등은 신청 절차나 지급 수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현장 밀착형 안내와 충분한 홍보가 필수적이다. 도는 이를 위해 14일부터 ‘국민서비스’를 운영하고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총 17개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신청 방법과 사용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도민에게도 다채로운 소통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를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혜택은 주어졌지만 활용은 되지 않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도와 시군의 촘촘한 행정 대응, 사용자 확대를 위한 상점 참여 유도, 홍보 강화와 민원 대응 체계 강화 등이 그 열쇠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충격이 큰 계층에게는 보다 손쉽고 신속한 접근 방식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민생은 곧 정치의 출발점이자 종착지이다. 전북도는 이번 소비쿠폰 정책을 단순한 예산 소진이 아니라 위축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고통받는 서민 가계에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소비쿠폰이 전북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빈틈없는 준비와 세심한 실행이 요구된다.



오늘의시

그 여름 / 신 경 림

한 사람의 울음이
온 마을에
울음을 불러오고
한 사람의 노래가
온 고을에
노래를 물고왔다

구름을 물고오고
바람과 비를 물고왔다

꽃과 춤을 불러오고
저주와 욕설과 원망을 불러왔다

한 사람의 노래가
온 거리에
노래를 물고오고
한 사람의 죽음이
온 나라에
죽음을 불러왔다

시인 약력 : 1936년 충북 충주 출생. 동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55년 ‘낯날’, ‘갈대’, ‘석상’ 등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한동안 생활고를 겪다가 동네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했다. 이후 ‘원격지’, ‘산음기행’, ‘시제’, ‘농무’ 등의 시를 발표했고 시학 해설서인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를 출간하며 작고한 시인들과 생존 시인들을 만나기도 했다. 1973년 만해문학상, 1981년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했다.

독자광장

교육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최근 전북 교육청 유정기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부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이 전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의 원리뿐 아니라 교육의 본질과 현장의 요구를 외면한 주장이다.

교육정책은 정치가 아닌, 아이들의 삶을 위한 실천이다

전북교육의 지난 3년은 단순한 ‘정책 운영’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 회복’의 시간이었다.

서거석 전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교사가 존중받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소신 아래,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자 애쓰는 교사들이 외부 민원과 고소·고발의 위협 속에서 무너지

는 현실을 직시하며 만들어진 실 효성 있는 대책이었다.

더불어 **‘기초학력 종합진단 및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은 코로나19로 무너진 학습 결손 문제를 과학적 진단과 집중 지원으로 회복시킨 혁신적인 시도였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전북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많은 학부모들은 “드디어 전북교육이 변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법적·도덕적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현장에 안착되던 중이었다. 이 정책들을 단지 정치적 구도 속에서 무효화하거나 전면 재검토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국 정책의 혜택을 받아가던 우리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들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행정의 안전장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교육감이 권위된 경우, 부교육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 임기를 수행하며, 현장 혼란 없이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은 단절되어선 안 된다
아이들의 학교는 내일도 열리고, 선생님도 오늘도 수업을 준비한다. 교육정책은 하루아침에 바뀌고 다시 실험되어선 안 되는 중장기 과업이다.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자’는 주장은 겉보기에 민주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정책의 공백과 행정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

교육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에 따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교육자는 교육의 중립을 지켜야 하며, 교육기관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이 조항은 단순히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 교육정책 전반이 정치적 이슈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교육이 정쟁의 장으로 휘말릴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항상 학생과 학부모, 교사였다. 지금 교육현장에 필요한 것은 누가 정권을 잡았는가 아니라, 무엇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다.

정책의 단절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연속성이 필요하다
서거석 전 교육감이 이룬 교권 보호, 학력 회복, 교육 신뢰 회복의 정책은 단지 ‘정치인의 업적’이 아닌, 전북의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함께 만들어진 교육공동체의 성취이다.

정책의 정당성은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었느냐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유정기 권한대행의 정책 유지 방침은 교육행정의 정통성과 헌법적 책무를 지키는 올바른 방향이며, 지금 가장 필요한 선택이다.
교육이 정치는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의 정신이며,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켜주는 교육자치의 본질이다.

/변호사-전북교육 현안 자문 최성민

문화재열전



송광사 사적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기록유산, 서각류, 금석각류, 비

- 지정일 - 1971년 12월 2일

- 소재지 -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윤관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지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타임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도지회 공동주최

제13회 전북 어린이 자연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 ‘호응 속에 성료’



●대상● 부안동초 김보민



●대상● 정읍서초 정우진



●대상● 정읍서초 정연서



◆최우수상◆ 부안동초 김가울



◆최우수상◆ 전주용흥초 주소연



◆최우수상◆ 부안동초 임지아

대상 수상자

부안동초 김보민·정읍서초 정연서·정우진

전북타임스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도지회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최한 '제13회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지난 9일 성황리에 마쳤다. 2012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는 도내 꿈나무들에게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을 키우기 위한 문예마당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20년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대회로 전환된 이후 6회째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전북도 내 17개 시군에서 어린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그림 실력을 뽐냈다.

도내 초등학교에서 총 270여 명이 참여했고,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주제로, △자연 환경이 보존된 청정한 전북, △다양한 전북지역 환경보전 이야기 △순수하고 건강한 아이들의 모습 등을 화폭에 담아냈다.

대회 수상작은 총 80점이며(대상 3명, 최우수상 4명, 특별상 3명, 우수상 20명, 장려상 50명) 대상(전북교육감상 1명, 전북도의회장상 1명, 전북도지사상 1명)의 영광은 부안동초등학교 4학년 김보민 학생(전북도지사상)과 정읍서초등학교 3학년 정연서 학생(전북교육감상), 정읍서초등학교 1학년 정우진 학생(전북도의장상)에게 돌아갔다.

대상 작품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지 않은 순수하면서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보호를 표현한 것을 높게 평가해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부안동초 1학년 김가울 학생(전주시장상)과 전주용흥초 3학년 주소연 학생(전주시장상), 부

안동초등학교 3학년 임지아 학생(전주시의장상), 정읍한솔초 2학년 김시연 학생(전주시의장상)이 선정됐다.

특별상(국회의원상)은 전주용흥초 4학년 최지우 학생과 정읍동신초 6학년 이선진 학생, 전주용흥초 3학년 최아윤 학생이 수상했다.

수상작은 전북미술협회 백승관 회장(심사위원장)과 전북예총 이경로 사무처장 등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문화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자 시상식은 오는 9월 13일 전주시의회 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수상자에 한해 따로 전달한다.

출품된 모든 작품은 향후 전북타임스 전시회, SNS, 홍보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며, 전북 지역의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 총 심사를 맡은 백승관 심사위원장은 "올해 대회는 예년보다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서적 감성이 다수의 작품에 표

현 됐다"며 "여기에 심사위원들은 초등학생으로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지 않은 순수하면서 뛰어난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작품은 뛰어나지만 초등학생의 범위 내라고 볼 수 없는 인위적인 작품은 탈락했고, 보편적으로 출품작은 매우 우수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타임스 최준호 대표는 "제13회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통해 도내 어린이들이 자연환경과 보호 문제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하며, 보존된 청정한 삶의 터전에서 순수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우수상(전북미술협회상 10·전북예총상 10)은 △정읍서초 5학년 김시연 △전주용흥초 3학년 이승민 △이리고현초 6학년 김주는 △전주서신초 1학년 김지안 △정읍수성초 1학년 허신우 △정읍한솔초 1학년 윤지율 △정읍서초 5학년 김연서 △정읍영산초 6학년 권다현 △전주교대부설초 3학년 최라희 △전주용흥초 5학년 정하영 △정읍서초

2학년 이지율 △정읍정일초 4학년 김소현 △전주인봉초 1학년 조건우 △정읍백암초 1학년 장예린 △정읍서초 1학년 허승혁 △완주이성초 2학년 김시연 △전주아중초 4학년 모지호 △정읍서초 2학년 김시우 △정읍서초 1학년 민서아 △전주인후초 2학년 이건민 등 총 20명이 수상했다.

■ 장려상(전북타임스상)은 △정읍동신초 2학년 김서연 △전주용흥초 1학년 유나원 △전주용흥초 1학년 최재경 △전주용흥초 4학년 양다연 △전주용흥초 6학년 김하린 △임실대리초 3학년 박신우 △전주교대부설초 2학년 김연지 △전주용흥초 3학년 차유주 △정읍한솔초 4학년 전소윤 △정읍한솔초 3학년 지은서 △정읍한솔초 3학년 김선겸 △정읍한솔초 2학년 임유은 △정읍한솔초 5학년 남하솔 △정읍한솔초 1학년 최이수 △정읍서초 1학년 이라엘 △정읍서초 1학년 김승정 △정읍동신초 2학년 최빛나 △정읍서초 3학년 이정원 △정읍서초 4학년 김서연 △정읍서초 4학년 이시현

△정읍서초 5학년 문지원 △정읍서초 4학년 이서준 △정읍서초 4학년 박준수 △정읍서초 5학년 송이슬 △정읍동초 3학년 김시연 △정읍동초 6학년 김지수 △정읍백암초 5학년 정지아 △전주용흥초 4학년 서진우 △전주효림초 4학년 김채경 △전주대정초 4학년 경민선 △부안동초 4학년 김민경 △완주화산초 4학년 권지훈 △전주인봉초 1학년 문진서 △전주초포초 2학년 전제이 △전주인봉초 5학년 전준영 △부안동초 1학년 김준우 △전주아중초 3학년 이상겸 △전주전라초 1학년 이윤설 △전주인후초 4학년 한지우 △전주인후초 1학년 최민재 △전주전라초 1학년 김민규 △전주인봉초 1학년 김별하 △전주동초 1학년 엄지율 △전주인봉초 1학년 김지아 △전주기린초 3학년 최지민 △전주인봉초 3학년 진다은 △전주인봉초 4학년 오한희 △전주양현초 1학년 정수아 △전주동초 1학년 김지안 △전주기린초 6학년 김다은 등 총 50명이 수상했다.

/최성민 기자